

「2018년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사업」 심의 총평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공모를 통해 총 36개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습니다. 각 분야 6인의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서와 미디어 자료를 토대로 2차 대면(PT) 심사 대상 9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심층 면접과 토론을 거쳐 최종 5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의]

1차 서류심의는 공연형 24개, 시연형 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이해도, 기술의 참신성, 시연·공연화 실현가능성 외에도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요소에 대한 이해도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과 기술 중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지원신청서에 명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당분야 공연예술 분야 향유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기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제시된 기술의 개발 및 발전계획에 비해, 해당 기술을 통해 표현하려는 작품의 예술적 방향에 대한 불분명함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적으로도 구체적인 실현 계획과 작품적 내용성을 지녔는가를 판단하여 심의 결과, 공연형 6개, 시연형 3개 프로젝트를 1차 선발하였습니다.

[2차 대면(PT)심의]

대면(PT)심의는 기준은 공연예술 기여도 및 파급효과, 계획실현 방안, 사업수행 능력,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5분의 발표와 10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선발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기술과 예술 양 분야에서 실험적인 시도를 준비하였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몇 프로젝트의 경우 기준에 발표된 공연과의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종 발표 형태를 공연형과 시연형으로 구분하고, 단체/예술가들이 제시한 최종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공연형 2개, 시연형 3개 총 5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테크놀로지 기술을 비교적 뚜렷한 예술적 목표를 위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진 예술가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사업 진행 중 자문단의 전문적인 자문과 함께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총 2개 예술단체/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접수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 프로젝트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이전의 공연 형태를 재창작 하는 과정에서 책정된 예산이 최종 공연 작품의 단순 제작비로 책정된 경우 타 프로젝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지원금 삭감을 결정하였고 신청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분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위의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지원시기의 재고 등이 여전히 창작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예술가들에 감사드리고 모든 단체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